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경성 한덕웅
성균관대학교

한국 사회에서 미혼남녀들이 친밀한 이성관계를 이루는 상대방과 관계에 대해서 지니는 이상들(ideals)을 살펴보고, 교제 중인 관계에서 이 이상들의 충족 수준이 관계만족과 관계개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509명의 미혼남녀가 이상적인 배우자, 애인, 결혼관계, 혹은 애인관계의 특징들을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 혹은 애인을 기술하는 66개, 이상적인 결혼관계 혹은 애인관계를 기술하는 51개의 특징들이 조사되었다. 연구 2에서는 338명의 미혼남녀들이 연구 1에서 얻은 특징들을 이상적인 상대방 혹은 관계를 기술하는데 미치는 중요성의 측면에서 평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이상적인 배우자 혹은 애인의 특징들은 다정함/신뢰, 능력/자원, 매력, 자신감/밝음, 및 자녀양육과 살림능력으로 해석되는 5요인 구조를 이루었고, 이상적인 결혼관계 혹은 애인관계의 특징들은 친밀성, 애정표현, 동등성/적당한 거리 유지, 유사성, 및 경제적 여유로 해석되는 5요인 구조를 이루었다. 연구 3에서는 현재 교제 중인 74명(남 37, 여 37)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남성들은 교제 중인 애인이 자신이 바라는 만큼 매력적이지 않을수록 관계에 불만족하고, 관계에 덜 개입하였다. 반면에 여성들은 교제 중인 애인이 자신이 바라는 만큼 능력이 없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더 불만족하고, 덜 개입하였다. 이외에도 여성들은 다정함/신뢰와 자녀양육/살림능력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클수록 관계에 덜 개입하였다. 그리고 남녀 모두 애인과 관계에서 자신이 바라는 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서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지 않으며 구속하거나 집착한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더 불만족하고, 관계에 덜 개입하였다.

주요어 : 친밀한 이성관계, 이상, 관계만족, 관계개입

개인이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지니는 기대나 이상(理想, ideals)은 현재의 관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Kelley & Burgoon, 1991). 따라서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대 혹은 '이상'을 지니는지

를 알아내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기대와 '이상'은 다르다. Higgins(1989)의 정의에 따라 '이상'을 원하거나 바라는

상대 혹은 관계의 모습들로 정의하면 ‘이상’은 상대 혹은 관계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상대나 관계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보상의 수준을 기대로 본다면, 이는 상대방 혹은 관계로부터 실제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적 수준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선택이나 관계만족에서 개인의 기대나 ‘이상’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후자의 관점에서 연구(예: Bochner, Krueger & Chmielewski, 1982)되었거나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배우자 선택의 조건을 다루어 왔다(예: 홍대식, 1996; Buss, 1990).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친밀한 이성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는 구체적 ‘이상’들이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는지를 알아내고 이 ‘이상’들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상’과 실제의 차이가 관계만족이나 관계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적 기준에 관한 고전이론들과 연구들

상호의존이론.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지니는 기준 혹은 기대에 근거해서 관계를 평가한다는 가정은 Thibaut와 Kelley(1959)의 상호의존이론(interdependence theory)에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제안되었다. 상호의존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지니는 전반적인 기준 혹은 기대(comparison level)와 그 관계로부터 얻는 보상(outcomes)을 비교한 결과로 만족이 결정된다. 여기에서 비교수준은 관계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전반적 보상의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이상적 기준들을 지닌다(Kelley & Burgoon, 1991; Bollman, Schumm, Jurich, & Yoon, 1997; Hackel & Ruble, 1992). 이 이상적 기준들은 적절한 관계, 관계를 이루는 상대방, 혹은 자신에 대해서 지니는 지식구조들로서, 이 가운데 특히 관계 및 상대방에 대한 ‘이상’들은 자신이 당면한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Fletcher & Thomas, 1996). 그러므로 자신과 친밀한 관계 및 관계를 이루는 상대방에 대해 지니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관계만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 및 관계를 이루는 상대방에 대해 어떤 이상적 기준들을

지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현재의 관계 및 상대가 자신이 지니는 이상적 기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수준에 따라서 관계만족이 달라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상적 기준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자기차이이론들. 자신이 지니는 기준과 현재 상태의 차이가 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기차이이론가들의 주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James는 자기를 물질 자기(material self), 사회적 자기(social self), 정신적 자기(spiritual self), 그리고 순수 자아(pure ego)로 구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 자신이 지니는 속성들이 정신적 자기와 합치되지 않으면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사회적 자기와 합치되지 않으면 수치감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ooley(1902)는 타인이 바라는 이상적 자기(사회적 이상 자기, social ideal self)가 실제 자신의 모습과 합치되지 않으면 수치감이나 무가치감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최근에 자신이 지니는 여러 기준과 실제 자신의 모습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론으로 Higgins(1987, 1989)가 제안한 자기차이이론을 들 수 있다.

Higgins는 자기가 실제 자기(actual self), 이상적 자기(ideal self), 그리고 당위적 자기(ought self)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자기들 간 차이의 속성과 크기가 경험하는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상적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적 자기나 당위적 기준에 해당하는 당위적 자기와 실제 자신의 모습 간 차이에 따라서 경험하는 정서의 유형이 다르며, 지각된 차이가 클수록 그 차원과 관련된 정서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다. Higgins(1989)에 따르면, 실제자기와 이상자기의 차이는 정적 결과의 부재를 반영하여, 그 결과로서 실제자기와 이상자기의 차이가 큰 사람들은 실망, 불만족, 및 수치와 같은 낙담관련정서를 느끼게 된다. Higgins는 자신의 모습과 관련된 기준과 실제 자신의 모습 간 차이와 경험하는 정서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논리는 관계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상대방과 관계에 대한 ‘이상’의 내용 관계 상황과 관련된 지식구조는 크게 자기, 상대방, 그리고 관계의 세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Baldwin, 1992). 이 관점에서 Higgins(1989)의 자기차이이론을 관계 상황

에 적용하면 자기의 구성요소는 관계와 관련된 지식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상대방에 관한 지식구조에 적용하면, 이상, 당위 및 실재는 각각 상대방에 대해서 바라거나 원하는 바, 상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바, 그리고 현재 상대방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대에 대해서 바라는 이상과 실제 상대방 모습의 차이, 상대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과 실제 상대방의 모습 간 차이는 각기 다른 정서를 유발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친밀한 관계에서 관계 상황과 관련된 이상적 기준들을 알아보거나 이 이상적 기준들과 현재의 차이가 개인의 정서 및 관계에 대한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알아보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먼저 지금까지 관계 상황에서 이상의 구조와 내용을 다룬 연구들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연애상대 혹은 배우자의 조건을 다루는 연구들이었다. 예컨대, “연애상대” 혹은 “결혼상대”로서 어떤 특징들을 지닌 사람을 선호하는지 애인이나 배우자의 선택 조건을 연구하거나(예 : 흥대식, 1996; 최인수 · 원원선, 2000; Buss, 1990; Feingold, 1992) 배우자 선택이 성, 연령 및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인(예 : Feingold, 1992; Schoen & Wooldredge, 1989; 임진, 1992)이나 성과 사랑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예 : Rogers, 1983; 흥대식, 1996). 따라서 배우자의 선택 조건들을 다룬 많은 연구들과 더불어 이상의 구조와 내용을 다룬 소수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성관계에서 어떤 이상적 기준들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이 기준들이 관계만족 및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친밀한 이성관계에서의 ‘이상’을 다룬 연구로서는 Fletcher, Simpson, Thomas, 및 Giles(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음의 세 차원에서 이상적 상대를 판단한다 : (1)다정함/신뢰할 수 있음-친밀성, 다정함, 신뢰 및 충성심과 관련된 특징, (2)생동감(vitality)/매력-상대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활기차고, 건강한지를 다룬 성격 및 외모 특징, 그리고 (3)지위/자원-사회적 지위와 자원과 관련된 특징. 이러한 결과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 차원들은 자신의 생식 능력을 증진시키고 짝을 얻기 위한 “자원들”들로서(Buss & Schmitt, 1993), 짝 선택(Simpson &

Gangesad, 1992) 혹은 짝 선택전략(Buss & Schmitt, 1993)에 관한 이론과 연구들에 따르면, 이 차원들은 모두 성공적인 짝 선택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다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헌신하고 협조적이기 쉬우며, 매력적이고 건강한 상대, 즉 젊고 건강한 상대는 번식력이 더 높다. 또한 자원과 지위가 높은 상대는 사회계급을 올리고 이를 지닌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형성하게 하기 쉽다. 때문에 사람들은 친밀성과 개입 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대, 매력적이고 건강한 상대,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자원이 많은 상대를 이상적 상대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이상적 관계로 지각할까? 관계 상황에서 자기, 상대방, 그리고 관계와 관련된 지식구조는 일부분 중복된다(Baldwin, 1992). 따라서 관계 상황에서는 자기, 상대 및 관계 영역에 고유한 이상(ideals) 이외에 세 요소, 즉 자기, 상대, 그리고 관계의 요소가 결합된 ‘이상’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영역의 ‘이상’은 다른 영역의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impson, Fletcher, & Campbell, 2000). 예를 들어 크게 웃고 유머러스한 관계의 유지가 이상적 관계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적 상대가 지니는 특징으로 유머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상적 상대의 기준들이 대부분 관계의 기준에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이상적 상대의 기준 가운데 친밀성은 친밀한 관계, 그리고 오랜 동안 관계가 유지되는데 기여하는 관계의 특징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위/자원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관계의 형성에 기여하므로 관계에 중요한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이상적 관계의 내용을 살펴본 Fletcher 등(1999)의 연구 결과들을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1)친밀성/충성심-관계에서 친밀성, 충성심, 및 안정성과 관련된 특징과 (2)열정-관계에서 흥분과 열정과 관련된 특징-을 이상적 관계의 기준들로 지각하였다. 친밀성이나 열정은 오랜 동안 만족스럽게 관계가 지속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특징들로서(Fletcher & Thomas, 1996),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계의 ‘이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 선택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Buss(1986)는 선호하는 배우자의 조건에서 성차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서 남성은 여성의 신체

적 매력을 더 선호하는 반면에 여성은 남성의 능력, 지위, 독립심 등을 선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Buss 등(1990)은 37개국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 관한 성차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혀냈다. 이러한 차이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비슷하였다. Feingold(1990, 1992)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적 매력을 더 중시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경제적 지위, 야망, 성격 및 지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내에서 미혼남녀들의 배우자 선택 기준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이와 같은 성차가 발견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한 서병숙·정해은(1994)에 따르면, 미혼남녀 모두 애정, 성격, 건강과 같은 개인적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비슷하나 남성은 여성의 용모를, 여성은 남성의 학벌과 생활력 등 현실 조건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는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하였다. 최인수와 원윤선(2000)은 중, 고, 대학생들의 이성친구 선택 기준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남학생들은 외모(예: 얼굴, 몸매, 옷 입는 것)와 관련된 요인을 중시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비전(예: 주관이 뚜렷해야, 꿈이 있어야, 성실해야, 똑똑해야), 신세대적인 특징(예: 친구관계가 원만해야, 유머감각이 있어야, 감정이 풍부해야, 개성이 있어야, 잘 노는 사람이어야, 매사에 적극적이어야), 현실적인 조건(예: 돈이 많아야, 집안이 좋아야, 키, 종교가 같아야)들을 남학생들보다 더 고려하였다.

Buss(1994)는 이러한 성차를 나타내는 이유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제일 중요한 것은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인데 성별에 따라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남성들은 후손의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후손을 남겨줄 수 있는 매력적이고 건강한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반면에 여성들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남성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선호하는 연애상대나 배우자의 조건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이상적으로 지각하는 상대에 관한 모습을 다루는 연구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이성관계를 이루는 상대 및 관계에 대해서 지니는 '이상'에서 성차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상대 및 관계 이상들이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Simpson, Fletcher, 그리고 Campbell(2000)은 이상적 기준 모델(model of ideal standards)을 제안하였다. 이상적 기준 모델에 따르면, 상대와 관계의 이상은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식구조로서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이 모델에서는 상대와 관계에 대한 이상이 평가, 설명 및 조절의 세 기능을 갖는다고 제안한다. 즉, 이상적 기준과 현재 상대/관계 지각에서의 차이의 크기는 개인으로 하여금 (1)상대와 관계의 질을 평가하고 (2)왜 이런 결과가 얻어졌는지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3)자신의 관계를 조절(예컨대 현재 상대/관계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 기준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여러 이론들에서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인지일관성이론이나 균형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상과 실제 상황에 대한 지각 간에 일관성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다. 따라서 이상과 실제가 차이가 있으면 부정적 정서가 경험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계 상황에서 관계 및 상대에 대한 '이상'은 개인이 관계 및 상대에 대해서 바라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실제 모습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수록 관계에 대해 더 불만족하고 덜 개입할 것으로 가정된다.

Campbell, Simpson, Kashy, 및 Fletcher(2001)는 이상적 기준 모델에서 제안하는 세 기능 가운데 첫 번째 기능 즉, 이상적 기준과 실제의 차이가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들은 교제 중인 사람들에게 선행연구에서 이상적 상대의 특징으로 얻어졌던 세 척도, 즉 다정함/신뢰할 수 있음, 생기/매력, 및 지위/자원 척도로 이상적 상대 및 현재의 상대를 평정하게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 교제 중인 사람들은 현재 상대가 자신의 이상과 잘 부합될수록 관계만족이 높았다.

한편 Kelley와 Burgoon(1991)은 부부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준들이 관계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은 Burgoon과 Hale(1984, 1987)이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8가지 주제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관계의사소통척도(RCM, Relational Communication Measure)를 수정하여 관계차이척도(RDM, Relationship Discrepancy Measure)를 개발하였

다. 이 척도는 친밀성, 지배성, 감수성, 평정을 잃음/흥분, 거리(서로 거리를 둠), 동등함(equality)/신뢰, 및 비공식(예, 대화가 비공식적인지) 척도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이 척도들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고 이 기대와 실제 행동 간 차이를 계산하였다. 연구 결과, 기대와 실제 모습에 대한 지각 간의 차이가 클수록 결혼생활에 불만족하였는데, 특히 친밀성($r=.39$), 동등성/신뢰($r=.39$), 평정을 잃음/흥분($r=.37$), 지배성($r=.29$), 및 거리($r=.21$) 영역에서 차이가 클수록 결혼생활에 불만족하였다. 이 연구들은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상대방에 대해서 지니는 이상과 실제 상대의 모습 간 차이가 관계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이 연구 결과는 관계 평가의 다른 기준이 되는 관계에 대해서 지니는 이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추론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관계가 관계에 대해서 지니는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할수록 관계에 더 불만족하고 덜 개입할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 및 관계를 이루는 상대에 대해서 지니는 이상적 기준을 알아보고, 이 기준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한국인들이 친밀한 관계 및 상대에 대해서 지니는 ‘이상’들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성간의 친밀한 관계는 크게 연애관계와 결혼관계로 구분될 수 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계 성공의 예측 요인을 연구한 Fletcher와 Kininmonth(199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에게서 연애관계와 결혼관계의 성공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매우 유사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Fletcher는 후속연구에서 연애관계와 결혼관계에서의 이상이 같으리라는 가정 하에 친밀한 관계 및 상대에 대해서 지니는 이상을 살펴보았다(Fletcher, Simpson, Thomas, & Giles, 1999). 그러나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면, 교제 중에 동거하는 연인들이 많은 미국에서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거하는 연인들의 경우 결혼한 부부와 유사한 ‘이상’들을 가지기 쉬운 반면에 동거 없이 교제 중인 연인들은 동거하거나 결혼해서 사는 부부와는 다른 ‘이상’들을 가질 수 있다. 따

라서 결혼 전 동거하지 않고 단순히 교제만 하는 연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의 연인들은 이상적 애인과 배우자에 대한 이상이 다를 수 있다. 추후에 이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애관계와 결혼관계를 구분하여 이상적인 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특징과 애인관계의 특징, 그리고 이상적인 배우자로서 갖추어야 할 특징과 이상적 결혼관계의 특징을 각각 조사하였다.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

2001년 10월에서 11월 중순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서울의 S, 전주의 J, 및 대구의 D 대학에서 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미혼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509명(남 254, 여 255)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이상적 배우자, 애인, 결혼관계, 및 애인관계의 특징을 기술하게 하는 조사 가운데 한 조사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의 특징을 알아보는 조사에는 133명(남 66, 여 67), 이상적인 애인의 조사에는 121명(남 61, 여 60), 이상적 결혼관계의 특징을 알아보는 조사에는 127명(남 62, 여 65), 이상적 애인관계의 조사에는 128명(남 65, 여 63)이 참여하였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과학계가 206명, 자연공학계가 236명, 그리고 예체능계가 39명, 무응답이 28명이었다.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21.9세(남 22.2, 여 21.6)였으며, 이들 가운데 과거 이성친구를 사귄 경험이 없는 사람은 159명(남 93, 여 66), 현재 이성친구가 없는 사람은 334명(남 190, 여 144)이었다.

절차

이상적인 배우자의 특징을 알아보는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게 이상적인 배우자로서 갖추어야 할 특징들을 생각나는 대로 기술하게 하였다. 이상적 애인, 결혼관계, 혹은 애인관계 조사에서 배우자 대신 각각 애인, 결혼관계, 애인관계로 대치한 점을 제외하고 다른 지시 내용은 동일하였다. 제한시간은 없었으며, 최대 15개까지 기술할 수 있게 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들은 평균 8.18개(남 8.25, 여 8.11)의 특징들을 기술하였다. 각 조건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들은 이상적인 애인이 갖추어야 할 특징을 10.52개(남 10.62, 여 10.4)로 가장 많이 기술하였고, 이상적인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특징을 기술하는 조사에서 8.14개(남 8, 여 8.27)를 기술하였다. 이상적인 관계의 특징을 기술하는 조사에서는 결혼관계의 경우 7.15개(남 7.23, 여 7.0), 애인관계의 경우 7.04개(남 7.26, 여 6.1)를 기술하여 상대방의 특징을 기술할 때보다 더 적게 기술하였다.

조사대상들이 기술한 특징들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특징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방법으로 축약하였다. 세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하였으며 분류의 92%가 일치하였다.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였다. 이상적인 배우자와 애인의 특징들을 코딩한 결과, 총 294개의 범주가 얻어졌으며, 이상적 결혼관계와 애인관계의 특징들을 코딩한 결과, 총 261개의 범주가 얻어졌다. 이 가운데 각 조건별로 5% 이내의 조사대상들에게서 기술된 특징들(각 조건별로 6개 이하의 빈도인 특징)을 제외시킨 결과, 최종적으로 이상적 배우자와 애인의 특징으로 66개, 이상적 결혼관계와 애인관계의 특징으로 51개의 범주가 생성되었다. 표 1과 2에 각각 이상적인 배우자와 애인의 특징들, 그리고 이상적인 결혼관계와 애인관계의 특징들(7개 이상의 빈도를 보인 특징들)과 각 특징의 백분율¹⁾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들이 이상적 상대와 관계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특징들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같은 취미나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고(22%), 외모가 준수한 사람(22%)을 이상적인 배우자와 애인의 특징으로서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표 1 참조). 그 다음으로는 대인관계가 좋고(20%),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20%), 이해심 많은 사람(20%)을 지적하였으며,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19%), 건강함(18%), 나보다 키가 큰 사람(17%), 부모나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15%),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15%),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15%), 착한 사람(15%), 및 바람피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15%)의 순서대로 지적되었다.

이상적 결혼관계와 애인관계의 특징으로(표 2 참조) 조사대상들은 신뢰할 수 있고(33%), 같은 취미를 지니며(27%), 나를 사랑(24%), 이해(23%), 존중하며(18%), 그리고 서로 거짓말 하지 않는 것(18%)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여유있고(16%), 대화가 많으며(16%), 힘들 때에 도움을 줄 수 있고(15%), 서로의 부모나 가족과 친하게 지내고(15%), 사생활을 존중하는 관계(15%)를 이상적 애인관계나 결혼관계의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얻은 특징들이 이상적인 상대 및 관계의 특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고, 이 특징들을 대표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진화론의 관점에 따르면 건강하고 매력적인 상대, 지위가 높고 자원이 많은 상대, 그리고 관계가 지속되는데 필요한 특징을 지닌 상대를 이상적인 상대로 지각하기 쉽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이 드러나는 관계를 이상적 관계로 지각하기 쉽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얻은 특징들을 대표적 요인들로 축약하면 어떠한 특징들로 요약되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그리고 관계의 유형(애인관계/결혼관계)에 따라 이상적으로 지각되는 상대 및 관계의 특징들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

2003년 4월에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대학에서 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388명(남 212, 여 166, 무응답 10)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이상적 배우자와 결혼관계의 특징을 다룬 질문지나 이상적 애인과 애인관계의 특징을 다룬 질문지 중 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배우자 및 결혼관계의 특징을 알아보는

1) 백분율은 각 특징이 언급된 빈도를 응답한 조사대상의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을 기술한 남성은 총 66명인데, 이들 가운데 19명이 “이해심 많은”을 이상적인 배우자의 특징이라고 기술하였다. 백분율을 계산하면, $19/66 \times 100 = 29\%$ 로 이는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을 기술한 남성들 가운데 29%가 이해심을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조사에는 203명(남 112명, 여 85명), 이상적인 애인 및 애인관계의 특징을 알아보는 조사에는 185명(남 100명, 여 81명)이 참여하였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계가 161명(41%), 자연공학계가 179명(46%), 예체능계가 23명(5%)이었다.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21.9세(남 22.2세, 여 21.6세)였으며, 조사대상 가운데 과거 이성친구를 사귄 경험이 없는 사람은 101명(26%, 남 15%, 여 6%, 성에 관한 정보 무응답 4%), 현재 이성친구가 없는 사람은 207명(53%, 남 30%, 여 12%, 성에 관한 정보 무응답 10%)이었다.

절차

이상적 애인의 특징을 알아보는 조사에서는 참가자에게 이상적 애인의 특징들이 적힌 목록을 주고서 각 특징이 이상적인 애인을 기술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도의 측면에서 7점 척도(1 매우 중요하지 않다~7 매우 중요하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이상적 배우자, 결혼관계, 애인관계 질문지는 애인 대신 각각 배우자, 결혼관계, 애인관계로 대치한 점을 제외하고 다른 지시내용은 동일하였다. 제시되는 특징들의 순서를 반대로 하는 질문지도 제작하여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였다.

자료의 분석

(1) 각 특징이 이상적 배우자 혹은 애인의 특징으로서, 그리고 이상적 결혼관계와 애인관계의 특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한 자료로 성별 평균을 계산하였다. (2) 각 특징들을 대표적 요인들로 요약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하위요인별로 내적일치도를 Cronbach alpha(α)로 계산하였다. (3)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애인관계인지 결혼관계인지를 나타내는 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상대 및 관계 이상의 중요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하위요인별로 2(성별 : 남/여)×2(관계의 유형 : 애인관계/결혼관계)의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전반적 경향

각 특징이 이상적 배우자 혹은 애인의 특징으로서, 그리고 이상적 결혼관계와 애인관계의 특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한 자료를 분석하여 표 1과 2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들은 나에 대한 애정(M=6.69), 신뢰할 수 있음(M=6.55), 바람피지 않고 내게 충실함(M=6.40)을 이상적 배우자 및 애인의 특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반면에 긴 생머리(M=3.19), 술 잘 안함, 못함(M=3.26), 및 나보다 키가 큼(M=3.51)을 다른 특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이상적 결혼관계 및 애인관계의 특징으로서도 애정(M=6.67)과 신뢰가 있는 관계(M=6.56)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외에도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M=6.48), 진실한 관계(M=6.44)를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반면에 같은 종교(M=3.71), 이벤트로 감동을 주는 관계(M=4.52), 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관계(M=4.54)를 다른 특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이상적 상대 및 관계 특징들의 요인분석 및 내적일치도분석

이상적인 상대와 관계의 특징들을 대표적 요인들로 요약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공통변량의 초기값을 중다상관자승으로 한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유치, 누적변량비율 및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먼저 이상적 상대의 특징들을 중요도의 측면에서 평정한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 되는 요인은 8요인(각 요인의 고유치 14.66, 5.44, 4.21, 1.99, 1.45, 1.26, 1.05, 1.01)이었다. 요인의 개수를 3개에서 8개까지로 제한하여 각각 요인구조 및 해석의 용이성을 살펴본 결과, 5개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5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74.4%를 설명하였다. 기초요인구조를 varimax 방법으로 직교회전하여 요인을 해석하였다. 각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특징들을 제시하면(표 1 참조), 요인 1은 이해심 많은, 존중해 주는, 마음씨가 따뜻한, 바람피지 않고 충실한, 및 자상하고 친절한 특징들의 요인부하량이 다른 특징들에 비해서 높았다. 요인 2는 학벌이 좋은, 능력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안정된 직업이 있는, 및 똑똑한 특징들의 요인부하량이 다른 특징들에 비해서 높았다. 요인 3은 예쁜 얼굴, 외모가 준수한, 피부가 희거나 깨끗한, 날씬한, 및 웃는 모습이 예쁜 특징들의 요인부하량이 높았다. 요인 4는 주관이 뚜렷한, 자신감 있는, 대인관계가 좋은, 자기 일을 열심히

K S I

KCS I

KCS I

KCS I

하는, 및 밝고 명랑한 특징들의 요인부하량이 높았으며, 요인 5는 자녀를 잘 교육, 양육할 수 있는, 아이를 좋아 하는, 요리를 잘 하는, 낭비 안하는, 및 담배 피지 않는 특징들의 요인부하량이 높았다. 요인부하량이 높은 특징 들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 요인 1은 다정함/신뢰, 요인 2 는 능력/자원, 요인 3은 매력, 요인 4는 자신감/밝음, 그 리고 요인 5는 자녀양육과 살림능력으로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관계의 특징들을 중요도의 측면에 서 평정한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에서 고유치가 1.0 이 상 되는 요인은 6요인(각 요인의 고유치 13.06, 2.87, 1.81, 1.54, 1.43, 1.30)이었다. 요인의 개수를 2개에서 6 개까지로 제한하여 각각 요인구조 및 해석의 용이성을 살펴본 결과, 이상적인 관계의 특징들도 5개 요인(전체변 량의 78%)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각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특징들을 제시하면(표 2 참조), 요인 1은 서로를 존중하는, 서로를 이해하는, 서로 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힘들 때 도움을 주는, 및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특징들의 요인부하량이 다른 특징 들에 비해서 높았다. 요인 2는 적절한 스킨십을 허용하 는, 애정표현을 잘하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가정 적인,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및 성적 만족을 주는 특 징이, 요인 3은 가사를 분담하는, 남녀 차별이 없이 평등 한, 사생활을 존중하는, 너무 구속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및 자녀 양육을 같이 하는 특징들의 요인부하량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요인 4는 성격이 비슷한, 가정환경이 비 슷한, 가치관이 비슷한, 같은 취미나 공통의 관심사를 갖 는, 및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특징이, 그리고 요인 5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경제적 조건 이 비슷한, 둘 다 하는 일이 있는, 및 맞벌이 등의 특징들 이 요인부하량이 높았다. 요인부하량이 높은 특징들로 볼 때 요인 1은 친밀성, 요인 2는 애정의 표현, 요인 3은 동등한 관계/적당한 거리 유지, 요인 4는 유사성, 그리고 요인 5는 경제적 여유로 해석되었다.

한편 각 하위요인 별로 하위 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 간에 서로 상호상관이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하위요 인들에 대한 내적일치도를 Cronbach alpha(α)로 계산하 였다. 먼저 이상적 배우자 및 애인의 특징들을 요인분석 한 결과에서 얻어진 5개 요인 각각에 대해서 내적일치도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정함/신뢰를 측정하는 문항

들의 내적일치도는 $\alpha=.92$, 능력/자원은 $\alpha=.88$, 매력은 $\alpha=.86$, 자신감/밝음은 $\alpha=.81$, 그리고 자녀양육과 살림 능력은 $\alpha=.68$ 로서 모두 양호하였다. 이상적 결혼관계 및 애인관계의 특징을 다룬 5개 요인의 내적일치도로서 친밀 성 요인은 $\alpha=.91$ 이었으며, 애정의 표현은 $\alpha=.83$, 동등/ 거리는 $\alpha=.78$, 유사성은 $\alpha=.78$ 그리고 경제적 여유는 $\alpha=.84$ 로서 이상적 관계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내적일치 도도 모두 양호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대학생들은 이상적 상대의 특징으로 다정함/신뢰, 능력/자원, 매력, 자신감/ 밝음, 그리고 자녀양육과 살림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 며, 이상적 관계의 특징으로 친밀성, 애정의 표현, 동등 함/거리, 유사성,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이상적 상대의 특징으로서 다정함/신뢰, 능력/자원, 매 력, 자신감/밝음, 그리고 자녀양육과 살림능력, 이상적 관 계의 특징으로서 친밀성, 애정의 표현, 그리고 경제적 여 율을 중요하게 지각함을 보이는 결과는 진화론의 관점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특징들은 짝을 얻고 관계 를 영속시키기 위한 “자원”들로서 이상적 상대 및 관계 의 특징들로 지각되기 쉽다. 한편 동등함/거리는 Kelley 와 Burgoon(1991)의 연구에서 결혼한 부부들에게서 중 요하게 지각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성과 관계의 유형에 따라 중요하게 지각되는 상대 및 관 계의 이상이 달라지는가?

이상적 상대 및 관계 특징들을 요약한 요인들의 내적일 치도가 모두 양호하였기 때문에 각 하위요인들을 측정하 는 문항들을 평균하여 요인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하였 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으로 요약한 결과로 볼 때, 사람들은 이상적 상대의 특징으로 다정함/신뢰($M=6.17$)를 가장 중요하게 지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감 /밝음($M=5.57$)을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능력/자원($M=4.86$), 자녀양육/살림능력($M=4.82$), 그리고 매력($M=4.76$)은 다정/신뢰, 자신감/밝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 하게 지각하였다.

이상적 관계의 특징으로는 친밀성($M=6.17$)을 가장 중요하게 지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애정의 표현 ($M=5.51$)이나 남녀 차별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 것

표 3. 이상적으로 지각되는 상대 및 관계의 특징(연구 2)

관계의 유형 성 별	애인 관계			결혼 관계			전 체			관계유형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관계유형	성별	*성별
이상적 특징들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상대방												
다정함/신뢰	6.03(.53)	6.27(.47)	6.11(.52)	6.11(.46)	6.47(.41)	6.22(.47)	6.07(.49)	6.37(.45)	6.17(.50)	5.65*	27.72***	1.04
능력/자원	4.43(.81)	5.62(.60)	4.83(.93)	4.50(.84)	5.68(.68)	4.89(.96)	4.47(.82)	5.65(.64)	4.86(.95)	0.54	163.69***	0.01
매력	4.91(.82)	4.38(.80)	4.73(.85)	4.99(.78)	4.39(.70)	4.79(.80)	4.95(.80)	4.39(.75)	4.76(.82)	0.22	35.43***	0.16
자신감/밝음	5.33(.72)	5.87(.61)	5.51(.73)	5.45(.64)	5.99(.60)	5.63(.67)	5.39(.68)	5.93(.61)	5.57(.70)	2.43	46.48***	0.00
자녀양육과 살림능력	4.87(.80)	4.37(.85)	4.70(.85)	4.91(.66)	4.95(.68)	4.93(.67)	4.89(.73)	4.67(.82)	4.82(.76)	12.27***	6.46*	8.81**
관계												
친밀성	6.08(.53)	6.26(.44)	6.14(.51)	6.08(.49)	6.45(.41)	6.20(.49)	6.08(.51)	6.36(.43)	6.17(.50)	2.86+	22.38***	2.66
애정의 표현	5.35(.54)	5.38(.72)	5.36(.61)	5.55(.72)	5.86(.67)	5.65(.71)	5.45(.65)	5.63(.73)	5.51(.68)	18.63***	4.64*	2.95+
동등/거리	5.14(.71)	5.74(.70)	5.34(.76)	5.32(.73)	5.80(.65)	5.48(.74)	5.23(.73)	5.77(.67)	5.41(.75)	2.06	40.29***	0.49
유사성	4.72(.88)	4.82(.81)	4.75(.86)	4.56(.97)	4.95(.88)	4.69(.96)	4.63(.93)	4.89(.85)	4.72(.91)	0.02	5.23*	1.98
경제적 여유	4.56(1.09)	5.64(.78)	4.93(1.11)	4.41(1.23)	5.52(.88)	4.77(1.24)	4.48(1.17)	5.58(.83)	4.85(1.18)	1.14	73.57***	0.03

(M=5.41)을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경제적 여유(M=4.85), 둘의 유사성(M=4.72)은 앞서 제시된 세 특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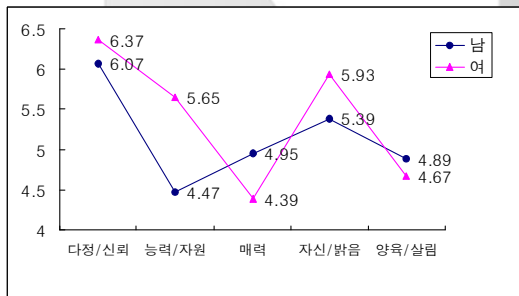


그림 1. 이상적 상대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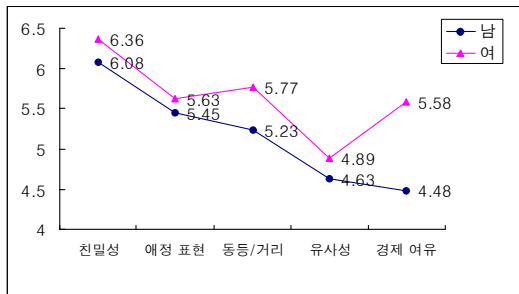


그림 2. 이상적 관계의 특징

한편 이러한 경향은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다소 달랐다. 성별에 따라서 이상적으로 지각되는 상대의 특징이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특징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이상적 상대의 특징 가운데 다정함/신뢰, 능력/자원 및 자신감/밝음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였으며,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매력과 자녀양육/살림능력을 중요하게 지각하였다(그림 1 참조).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다정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 $F(1, 312)=27.72, p<.001$, 능력과 자원이 많은 사람, $F(1, 312)=163.69, p<.001$,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밝고 명랑한 사람을 이상적 상대의 특징으로서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F(1, 312)=46.48, p<.001$. 반면에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F(1, 312)=35.43, p<.001$,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할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이상적 상대의 특징으로서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F(1, 312)=6.46, p<.05$.

이상적 관계의 특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이상적 관계의 모든 특징들이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그림 2 참조). 구체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며, $F(1, 314)=73.57, p<.001$, 남녀차별 없이 서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 $F(1, 314)= 40.29,$

$p < .001$, 친밀하고, $F(1, 314) = 22.38$, $p < .001$, 서로 유사하며, $F(1, 314) = 5.23$, $p < .001$, 애정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을 이상적 관계의 특징으로 더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F(1, 314) = 4.64$, $p < .001$.

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진 특징들은 이상적 상대의 특징 가운데 다정함/신뢰와 자녀양육/살림능력, 그리고 이상적 관계의 특징 가운데 애정의 표현이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다정함/신뢰나 자녀양육/살림능력, 그리고 애정의 표현이 애인관계보다 결혼관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 다정함/신뢰 $F(1, 312) = 5.65$, $p < .05$, 자녀양육/살림능력 $F(1, 312) = 12.27$, $p < .001$, 애정의 표현 $F(1, 314) = 18.63$, $p < .001$.

관계의 유형(애인/결혼)과 성별(남/녀)의 2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유일한 특징은 자녀양육과 살림능력이었다, $F(1, 312) = 8.81$, $p < .001$. 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이상적 애인의 특징으로서 중요성을 평가하게 하면 이상적인 배우자의 특징으로서 중요성을 평가할 때보다 자녀양육과 살림능력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F(1, 312) = 15.69$, $p < .001$, 남성들은 이상적 애인의 특징으로서 중요성을 평가하는 조건과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으로서 중요성을 평가하는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312) = 0.22$, $p > .63$.

요약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다정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 능력과 자원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자신감이 있고 밝고 명랑한 사람을 이상적 상대의 특징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남성들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이상적 상대의 특징으로서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남녀차별 없이 서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며, 친밀하고, 서로 유사하며, 애정의 표현을 자주 하는 관계를 이상적 관계의 특징으로 더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남녀 모두 다정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 애정의 표현을 자주 하는 관계를 이상적 애인 및 애인관계보다 이상적 배우자 및 결혼관계의 특징으로서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 한편 이상적 상대의 특징 가운데 자녀양육과 살림능력은 관계의 유형과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여서 여성들이 이상적 애인의 특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게 했을 때 다른 조건, 즉 남성들이 이상적 애인 혹은 배우자의 특징으로 판단하거나 여성들이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으로 판단하는 조건에 비해서 덜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애인을 사귄 때에는 상대 남성이 자녀양육/살림능력을 지녔는지의 여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지각되나 배우자로서 판단하게 할 때에는 이 특징을 더 중요하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연구 3

연구 3에서는 현재 교제 중인 연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상적 기준으로 연구 2에서 사용하였던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징들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교제 중인 상대 및 관계와 비교하기 위해서 각 특징들이 이상적 애인 혹은 애인관계의 특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의 측면에서 이상적 기준을 측정하였다. 자기차이이론들이나 이를 관계상황에 적용한 이론 및 연구들로 볼 때, 이상적 기준이 실제와 차이가 클수록 관계에 불만족하고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덜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S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가운데 교제 중인 74명(남 37, 여 37)이 조사의 대상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1세(남 22.3, 여 21.9)였으며, 평균 교제 기간은 12.7개월(남 13.6개월, 여 12.51개월)이었다.

절차

조사대상들은 먼저 관계만족과 개입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답한 후, 연구 1에서 얻은 이상적 애인과 애인관계의 특징들이 각각 이상적 애인이나 애인관계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중요도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그런 다음, 각 특징이 현재의 애인 혹은 애인관계를 얼마나 잘 기술하는지 측정하였다.

도구

관계만족과 개입은 이경성과 한덕웅(2003)이 결혼한 부

표 4. 교제 중인 연인들의 이상과 현재 (연구 3)

	남		여		전체	
	이상	현재	이상	현재	이상	현재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이상적 상대						
다정함/신뢰	6.00(.57)	5.57(.74)	6.35(.44)	5.89(.64)	6.17(.54)	5.73(.70)
능력/자원	4.29(.70)	4.52(.66)	5.67(.62)	5.21(.68)	4.98(.95)	4.86(.75)
매력	4.91(.83)	5.23(.75)	4.37(.71)	4.38(.68)	4.64(.81)	4.81(.83)
자신감/밝음	5.31(.85)	5.24(.81)	5.78(.56)	5.60(.84)	5.55(.75)	5.42(.84)
자녀양육과살림능력	4.72(.75)	4.74(.82)	4.36(.75)	4.59(.76)	4.54(.77)	4.67(.79)
이상적 관계						
친밀성	6.04(.56)	5.63(.73)	6.34(.44)	5.85(.76)	6.20(.52)	5.74(.75)
애정의 표현	5.18(.79)	4.93(.76)	5.61(.50)	5.16(.72)	5.40(.69)	5.04(.75)
동등/거리	5.15(.73)	5.11(.69)	5.77(.72)	5.33(1.00)	5.46(.78)	5.22(.86)
유사성	4.64(.85)	4.63(1.15)	4.87(.95)	5.04(.98)	4.76(.90)	4.83(1.08)
경제적 여유	4.53(.96)	4.82(.79)	5.70(.80)	4.84(.98)	5.13(1.06)	4.83(.88)
관계만족	5.63 (.80)		5.62 (.87)		5.62 (.83)	
관계개입	5.18 (.91)		4.95 (1.05)		5.06 (.98)	

부들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척도의 문항들을 결혼 전 관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관계만족을 측정하는 9문항(내적일치도 $\alpha=.89$)은 다음과 같다: $_$ 와 함께 하는 동안은 행복하다, $_$ 와 지내는 것은 권태롭다(-2), $_$ 와 사귀므로써 내가 바라던 것들이 충족되었다, 나는 $_$ 와 사귀게 된 것을 후회한다(-), 나는 현재 $_$ 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마지못해 $_$ 와 사귀다(-), 나는 현재 $_$ 와 사귀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_$ 이 지겹다(-), $_$ 를 만난 것은 행운이다. 관계개입은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과 해체에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7 문항($\alpha=.75$)들로 측정되었다: 나는 $_$ 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내가 $_$ 과의 관계를 끝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만약 $_$ 과 헤어지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과 사귌 수 있다(-), 나는 $_$ 과 익숙해져서 헤어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과 사귌 생각이 있다(-), 나는 $_$ 과 헤어지기가 어렵다, 나는 $_$ 과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다. 관계만족과 관계개입은 모두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상적 애인과 애인관계를 이루는 각 특징들이 이상적 애인 혹은 애인관계의 특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지각은 연구 2에서와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구

체적으로 이상적 애인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는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게 이상적 애인의 특징들이 적힌 목록을 주고 각 특징이 이상적인 애인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7점 척도(1 매우 중요하지 않다~7 매우 중요하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이상적 애인관계의 조사에서는 이상적 애인관계의 특징들이 적힌 목록을 주고서 각 특징이 이상적 애인관계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애인 혹은 애인관계에서 이상적 애인 및 애인관계의 각 특징들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특징이 현재의 애인 혹은 애인관계를 얼마나 잘 기술하는지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제시되는 특징들의 순서를 반대로 하는 질문지도 제작하여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였다.

자료의 분석

(1) 먼저 연인관계의 사람들이 이상적 애인 및 애인관계의 특징으로서 어떤 특징을 중요하게 지각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경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상적 애인 및 애인관계의 특징을 알아본 자료로 성별 평균을 계산하고 성별에 따른 t검증을 하였다. (2) 현재 교제 중인 애인 및 애인관계가 이

2) (-)는 역채점한 문항들이다.

표 5. 이상-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영역	단순상관(r)				중다회귀(R ²)			
	관계만족		관계개입		관계만족		관계개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상대								
다정함/신뢰	-.26	-.25	-.28	-.46**				
능력/자원	-.18	-.41*	-.32+	-.43*		.17		.18
매력	-.40*	-.25	-.41*	-.30+	.15		.15	
자신감/밝음	-.15	-.31+	-.14	-.34+				
자녀양육과 살림능력	-.22	-.30+	-.32+	-.47**				.06
관계								
친밀성	-.42*	-.46**	-.44**	-.40*	.18		.23	.14
애정의 표현	-.21	-.41*	-.29+	-.52**				
동등/거리	-.40*	-.50**	-.50**	-.39*	.06	.24	.09	
유사성	-.34+	-.21	-.36*	-.22				
경제적 여유	-.27	-.35*	-.46**	-.23				

주) 단순단계별 회귀분석결과에서 설명변량의 효과가 유의하여 모델에 포함된 기준들의 설명변량만 제시함.

상적 애인 및 애인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경향이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애인 및 애인관계에 대한 평가 자료로 성별 평균을 계산하고 성별에 따른 t검증을 하였다. (3) 마지막으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 및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어떤 영역에서의 이상과 현재 차이가 관계만족 및 개입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결 과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중요한 특징들

교제 중인 사람들이 이상적 애인 및 애인관계의 특징으로서 어떤 특징을 중요하게 지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를 평정한 자료로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제 중인 사람들은 남녀에 따른 차이 없이 대체로 현재의 관계에 만족하였으며(M=5.62) 개입 수준도 높아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M=5.06).

이들이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성으로서 중요하게 지각하는 특성에 관한 결과는 연구 2에서 일반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징으로서 중요도

를 평정하게 해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교제 중인 사람들은 다정함/신뢰를 이상적 상대로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각하였으며(M=6.17), 그 다음으로 자신감 있고 밝고 명랑한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지각하였다(M=5.55). 또한 능력/자원(M=4.98), 매력(M=4.64) 및 자녀양육과 살림능력(M=4.54)을 위의 두 특징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이들은 또한 친밀성(M=6.20)이 이상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지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녀 차별 없이 서로 동등하게 대하며 구속하지 않는 점(M=5.46)과 애정의 표현(M=5.40)을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경제적 여유(M=5.13)나 둘의 유사성(M=4.76)은 앞서 제시된 세 특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각 특징이 이상적 상대 혹은 관계의 특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평정한 결과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t 검증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결과도 연구 2에서 얻어진 결과와 대체로 동일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제 중인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다정함/신뢰, 능력/자원, 및 자신감/밝음을 이상적 상대의 특성으로서 중요하게 지각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매력이나 자녀양육/살림능력을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다정함/신뢰 t(72)=-2.95, p<.0043, 능력/자원 t(72)=-8.89, p<.0001, 자신감/밝음 t(72)=-2.79, p<.0068, 매력 t(72)=2.99, p<.0039, 자녀양

육/살림능력 $t(72)=2.03, p<.0456$. 이상적 관계의 특징들 가운데 둘의 유사성을 제외한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 모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제 중인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서로 친밀하고, $t(72)=-2.55, p<.013$, 애정의 표현을 자주 하며, $t(72)=-2.77, p<.0071$, 서로 차별 없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구속하지 않는 것, $t(72)=-3.63, p<.0005$,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이상적 관계의 특징으로서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 $t(72)=-5.61, p<.0001$. 둘이 서로 유사한 것을 이상적 관계의 특징으로 지각하는 수준에서는 남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72)=-1.08, p>.28$.

현재의 애인관계에서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징들이 충족된 수준

다음으로 교제 중인 사람들이 자신이 사귀고 있는 애인 혹은 애인관계가 이상적 상대 및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지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충족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이는 조사대상에게 각 특징이 현재 애인 혹은 애인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술하는지를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에서 평정하게 한 자료를 분석하여 얻었다.

먼저 이상적 상대의 특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들은 자신의 애인이 다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M=5.73$, 1위), 자신감 있고 밝다고 지각하였다($M=5.42$, 2위). 그리고 자신의 애인이 능력 있고 똑똑한 편이며 ($M=4.86$), 매력 있는 편이고($M=4.81$), 자녀를 잘 양육하며 살림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각하였다($M=4.67$).

또한 조사대상들은 애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M=5.74$, 1위), 남녀 차별 없이 대하고 서로를 구속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편이고($M=5.22$, 2위), 애정 표현도 잘 하는 편이라고 지각하였다($M=5.04$, 3위). 그리고 서로 성격이나 취미가 비슷하고($M=4.83$, 4위),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다고 지각하였다($M=4.83$, 4위).

이러한 경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이상적 상대의 특징 가운데 다정/신뢰, 자신감/밝음, 자녀양육/살림능력과, 이상적 관계의 특징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

를 보이는 특징은 이상적 상대의 특징 가운데 능력/자원과 매력의 두 특징이었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현재 사귀고 있는 애인이 능력과 자원이 많다고 지각하였으며, $t(72)=-4.40, p>.0001$,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현재의 애인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지각하였다, $t(72)=5.06, p>.0001$.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교제 중인 연인들이 상대방 및 관계에 대해서 지니는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클수록 관계에 더 불만족하고 덜 개입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각 특징별로 자신이 바라는 이상에 대해서 평정한 값에서 현재의 값을 빼서 이를 차이값으로 계산하였으며³⁾, 특징별 차이값을 합하여 이를 전반적 이상과 현재의 차이값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클수록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크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상과 현재의 차이값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관계만족과 개입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대의 특징들을 현재의 애인이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클수록 관계에 더 불만족하였으며, $R^2=.12, p<.0028$, 관계에 덜 개입하였다, $R^2=.17, p<.0003$. 또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관계의 특징들을 현재의 애인관계에서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클수록 관계에 불만족하였으며, $R^2=.21, p<.0001$, 관계에 덜 개입하였다, $R^2=.22, p<.0001$. 이 결과들은 개인이 이상적 애인 및 애인관계를 이루는데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특징들을 현재의 애인 및 애인관계에서 충족시키지 못할수록 관계에 더 불만족하며, 덜 개입하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어떤 영역에서의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관계만족 및 개입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 먼저 각 영역별로 얻은 이상과 현재의 차이값과 관계만족, 그리고 관계개입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고, (2) 각 영역별로 얻은 이상과 현재의 차이값을 예측변인으로 관계만족과 관계개입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단계별 회귀분석을 하였다.

3) 바라는 이상보다 현재 애인 혹은 애인관계가 더 낮다고 평정한 자료의 경우 0으로 고정하였다.

각 영역별 이상과 현재 간 차이와 관계만족 및 개입의 상관관계

각 영역별로 얻은 이상과 현재의 차이값과 관계만족, 그리고 관계개입의 단순상관관계를 성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들은 교제 중인 애인이 자신이 바라는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불만족하고, $r=-.40, p<.05$, 관계에 덜 개입하였다, $r=-.41, p<.05$. 반면에 여성들은 교제 중인 애인이 자신이 바라는 만큼 능력이 없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불만족하고, $r=-.41, p<.05$, 덜 개입하였다, $r=-.43, p<.05$. 여성의 경우 능력/자원 이외에 다정함/신뢰와 자녀양육/살림능력에서의 이상과 현재의 차이도 관계개입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들은 교제 중인 남성이 자신이 바라는 만큼 다정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을수록, $r=-.46, p<.01$, 그리고 자녀 양육을 잘하지 못하거나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등 가정적이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덜 개입하였다, $r=-.47, p<.01$.

이상적 관계 영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신이 바라는 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관계에 불만족하고, 남 $r=-.42, p<.05$, 여 $r=-.44, p<.01$, 관계에 덜 개입하였다, 남 $r=-.46, p<.01$, 여 $r=-.40, p<.05$. 또한 남녀 모두 자신이 바라는 만큼 서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지 않으며 구속하거나 집착한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불만족하고, 남 $r=-.40, p<.05$, 여 $r=-.50, p<.01$, 관계에 덜 개입하였다, 남 $r=-.50, p<.01$ 여 $r=-.39, p<.05$. 여성들은 이외에도 바라는 만큼 애정표현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불만족하고, $r=-.41, p<.05$, 덜 개입하였다, $r=-.52, p<.01$.

한편 여성들은 자신이 바라는 만큼 자신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불만족하였으나, $r=-.35, p<.05$, 이 차이가 관계 개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남성들은 자신이 바라는 만큼 서로 성격이나 가치가 비슷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지각한다고 해서 관계에 만족하는 수준이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이의 차이가 관계 개입에는 영향을 미쳤다. 즉, 자신이 바라는 만큼 성격이나 가치가 비슷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덜 개입하였다, 유사성 $r=-.36, p<.05$, 경제적 여유 $r=-.46, p<.01$.

각 영역별 이상과 현재 간 차이가 관계만족 및 개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1과 2의 결과를 통해서 얻은 상대 및 관계에 대한 이상적 기준들 가운데 관계만족과 개입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들을 알아보려 *stepwise* 방법으로 단순단계별 회귀분석을 하였다. 단순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성별로 관계만족 및 개입과 관련된 이상적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단순단계별 회귀분석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5개의 이상적 상대의 기준들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값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관계만족과 관계개입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단계별 회귀분석을 한 결과, 교제 중인 남성들의 관계만족과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기준은 매력이었다. 즉, 남성들은 자신이 바라는 매력 수준에 비해서 현재 교제 중인 애인의 매력 수준이 낮을수록 관계에 더 불만족하였으며, $R^2=.15, p<.02$, 덜 개입하였다, $R^2=.15, p<.02$. 반면에 여성들은 현재 교제 중인 애인이 자신이 바라는 능력/자원을 충족시키지 못할수록 관계에 더 불만족하였으며, $R^2=.17, p<.02$, 덜 개입하였다, $R^2=.18, p<.01$. 여성들의 경우에 상대의 능력/자원 이외에도 상대가 자녀를 잘 교육하며 가정적인지가 관계에 대한 개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은 자신이 바라는 수준에 비해서 상대의 능력/자원이 부족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가정적이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덜 개입하였다, $R^2=.24, p<.05$.

다음으로 5개의 이상적 관계의 기준들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값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관계만족과 관계개입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단순단계별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성들은 자신이 바라는 수준에 비해서 자신의 관계에서 친밀성이 부족하고 서로 차별 없이 동등하지 않으며 구속하거나 집착하는 편이라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불만족하고, $R^2=.24, p<.01$, 덜 개입하였다, $R^2=.32, p<.01$. 반면에 여성들은 자신이 바라는 수준에 비해서 현재의 관계가 서로 차별 없이 동등하지 않고 구속하거나 집착하는 편이라고 지각할수록 관계에 불만족하였으나, $R^2=.24, p<.01$, 이 때문에 관계에 덜 개입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수준에 비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것이 관계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않았으나, 이 때문에 관계에 덜 개입하였다,

$R^2=.14, p<.03$.

총 합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친밀한 관계 및 상대에 대해서 갖는 '이상'들을 살펴보고, 현재 교제 중인 관계 및 상대가 이 '이상'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결과가 관계만족 및 개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세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이상적 애인, 배우자, 애인관계, 혹은 결혼관계의 특징을 적게 하여 최종적으로 이상적 애인과 배우자의 특징으로 66개, 이상적 애인관계와 결혼관계의 특징으로 51개의 특징들을 얻었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에게 연구 1에서 얻은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하게 하여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징들이 각각 5개의 대표적 요인들로 축약됨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그리고 애인관계인지 결혼관계인지를 나타내는 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징이 달라짐을 알아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현재 교제 중인 남녀에게 이상적 기준과 현재 모습을 측정하여 일부 특징들에서 교제 중인 상대 및 관계가 자신의 이상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계에 불만족하고 덜 개입함을 알아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징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이상적 상대를 나타내는 66개의 특징들은 다정함/신뢰, 능력/자원, 매력, 자신감/밝음, 그리고 자녀양육과 살림능력의 5개 요인으로 요약되었으며, 이상적 관계를 나타내는 51개의 특징들은 친밀성, 애정의 표현, 동등함/거리, 유사성, 그리고 경제적 여유의 5개 요인으로 요약되었다. 이상적 상대의 특징들로 다정함/신뢰, 능력/자원, 및 매력이, 그리고 이상적 관계의 특징들로 친밀성이 추출된 점은 Fletcher 등(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이상적 상대의 특징들로 자신감/밝음과 자녀양육/살림 능력이, 이상적 관계의 특징들로 애정의 표현, 동등함/거리, 유사성,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중요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 결과로 볼 때, 한국인들은 이상적 상대의 특징들로 자신감있고, 밝고 명랑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살림을 잘 할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이상적 상대로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인들이 이상적 관계의 특징으로 신체적 흥분과 열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한국인들은 자신의 애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들은 이상적 관계의 특징으로 서로 남녀 차별이 없이 동등하고 구속이나 집착이 없는 관계, 성격이나 가치관, 취미가 비슷한 관계,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관계를 이상적 관계로 선호하였다.

(2) 본 연구의 결과, 성별에 따라서 중요하게 지각하는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징이 달랐다. 먼저 이상적 상대의 특징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이상적 상대의 특징 가운데 다정함/신뢰, 능력/자원 및 자신감/밝음을 남성들보다 더 중요하게 지각하였으며, 남성들은 매력과 자녀양육/살림능력을 여성들보다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성차는 진화론의 관점에서 수행된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진화론의 관점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우 재력이 있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투자할 물질적 자원을 더 많이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남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달할 기회를 높일 수 있다. 남성들 또한 좋은 양육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성, 즉 매력적이고 건강한 여성, 자녀를 잘 양육하는 여성을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상적 관계의 특징들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모든 이상적 관계의 특징들, 즉 경제적 여유, 동등함/적당한 거리 유지, 친밀성, 유사성, 및 애정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지각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들에 남성들보다 주안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본 연구의 결과, 이상적 상대의 특징 가운데 다정함/신뢰와 자녀양육/살림능력에서, 그리고 이상적 관계의 특징 가운데 애정의 표현에서 관계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은 다정하고 신뢰할 수 있음,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살림능력이 있음을 이상적 애인으로서보다 이상적 배우자로서 더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애정의 표현 또한 애인관계보다 결혼관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인들이 이상적인 애인 및 관계로 지각하는 특징들과 이상적 배우자 및 결혼관계로 지각하는 특징들이 일부 다

를 시사하며, 따라서 미국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에게 친밀한 관계 및 상대에 대한 '이상'을 측정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특히 자녀양육/살림능력 특징에서 관계의 유형(애인/결혼)과 성별(남/녀) 간 2원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과 살림능력이 이상적 애인의 특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하게 할 때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으로 평가하거나 남성들이 평가할 때보다 덜 중요하게 지각하였다. 이 결과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상대의 자녀양육 및 살림에 대한 역량을 이상적 애인의 특징으로서 덜 중요하게 지각하나, 이상적 배우자의 특징으로서는 남성만큼 중요하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5) 현재 교제 중인 연인들에게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성들의 경우 상대의 신체적 매력, 여성들의 경우 상대의 능력/자원이 관계만족과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적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성들의 관계만족과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적 관계의 기준은 친밀성과 동등함/적당한 거리 유지였다. 여성의 경우 관계만족과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적 관계의 기준이 달라서, 만족에는 동등함/적당한 거리를 두기가, 개입에는 친밀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작용했다.

이상적 상대의 기준으로 남성들은 매력, 여성들은 능력/자원을 중요하게 지각한다는 결과는 Buss를 비롯한 많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이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상적 관계의 기준으로 친밀성을 중요하게 지각하는 점도 Fletcher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 논문에서 지적되었듯이 관계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특징이 이상적 관계의 기준으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남녀 차별 없이 동등한 관계/구속과 짐작 없이 적당한 거리를 두는 점도 중요한 이상적 관계의 기준으로 다루어졌는데 이는 부부 관계 뿐만 아니라(Kelley & Burgoon, 1991) 교제 중인 연인관계에서도 서로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지각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미혼의 남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각하는 이상적 배우자 및 결혼관계의 모습이 실제 결혼한 부부들이 지각하는 '이상'과 다를 수 있다. 차차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얻

은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징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결혼한 부부들의 지각과 미혼남녀의 지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결혼한 부부들에게 직접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징을 적도록 한 자료를 분석해서 이들이 중요하게 지각하는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징들을 알아봄으로써 미혼의 남녀들이 중요하게 지각하는 이상적 상대 및 관계의 특징들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이경성 ·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8, 679-705.
- 임 진 (1992). 일부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수 · 원운선 (2000). 한국 중, 고, 대학생들의 이성친구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 131-143.
- 홍대식 (1996). 한국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기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10, 81-110
- Baldwin, M. W. (1992). Relational schemas and the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461-484.
- Bollman, S. R., Schumm, W. R., Jurich, A. P., Yoon, J. G. (1997).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from ideal and actual maternal roles. *Psychological Reports*, 80, 99-106.
- Buss, D. M. (1990). International preferences in selection mate A study of 37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25.
- Buss, D. M., & Barnes, M. (1986). Preferences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9-570.
- Buss, D. M., & Schmitt, D. P. (1993). Sexual strategies theory :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 204-232.
- Campbell, L., Simpson, J. A., Kashy, D. A., & Fletcher, G. J. O. (2001). ideal standards, the self, and flexibility of ideals in close relationships.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447-462.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Scribner's.
- Feingold, A. (1990).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romantic attraction :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81-993.
- Feingold, A. (1992).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 :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2, 125-139.
- Fletcher, G. J. O., & Kininmonth, L. (1992). Measuring relationship beliefs : An individual differences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371-397.
- Fletcher, G. J. O., & Simpson, J. A., Thomas, G., & Giles, L. (1999). Ideals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72-89.
- Fletcher, G. J. O., & Thomas, G. (1996). Lay theories in close relationships: Their structure and function. In G. J. O. Fletcher & J. Fitness(Eds.), *Knowledge structures in close relationships :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pp. 3-24). Mahwah, NJ : Erlbaum.
- Fletcher, G. J. O., Simpson, J. A., Thomas, G., & Giles, L. (1999). Ideals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72-89.
- Hackel, L. S., & Ruble, D. N. (1992). Changes in the marital relationship after the first baby is born : predicting the impact of expectancy disconfi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944-953.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ggins, E. T. (1989). Self-discrepancy : A theory :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In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2, pp. 93-136). New York : Academic Press.
- James, W. (1892). *Psychology*. Cleveland, OH : World Publishing.
- Kelley, D. L., & Burgoon, J. K. (1991). Understanding marital satisfaction and couple type as functions of relational expectation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8, 40-69.
- Schoen, R., & Wooldredgi, J. (1989). Marriage choices in North Carolina and Virginia, 1969-1971 and 1979-1981.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65-481.
- Simpson, J. A., Fletcher, G. J. O., & Campbell, L. (2000).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ideal standards in close relationships. In G. J. O. Fletcher & M. Clark(Eds.), *The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 Interpersonal processes*(pp.86-106). Oxford, England : Blackwell.
- Thibaut, J. W. &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 Wiley.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 and Relationship Ideals in Intimate Relationships

Kyung Seong Lee Doug Woong Hah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relationship and partner ideals in intimate relationships and the effects of discrepancy between ideals and perceptions of current relationship on relationship quality (satisfaction, commitment). The aim of study 1 was to create a list of common characteristics of ideal partners (lover/spouse) and romantic relationships (dating/marital relationship). 509 participants provided 66 ideal partner descriptions and 51 ideal relationship descriptions. In study 2, 338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rated the importance of the descriptions obtained in study 1 in their own ideal partners and ideal relationships. The results of factor analyses were as follows: For the ideal partner items, a five factor solution was suggested. The five factors were interpreted as warmth/trustworthiness, ability/resources, attractiveness, self-confidence/brightness, and management ability of household. For the ideal relationship items, a five factor solution was suggested. The five factors were interpreted as relationship intimacy, expression of love, equality/distance, similarity and economic well-being. Study 3 examined the effects of discrepancy between ideals and perceptions of current romantic relationship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mmitment. Men who reported the actual-ideal discrepancy in partner attractiveness tended to rate their relationships more negatively. On the contrary, women who reported the actual-ideal discrepancy in partner ability/resources tended to evaluate their relationships more negatively. Finally, men and women who reported the actual-ideal discrepancy in relationship intimacy or relationship equality/distance tended to evaluate their relationships more negatively.

Key words : intimate relationships, ideals, satisfaction, commitment

원고접수 : 2005년 1월 15일
심사통과 : 2005년 2월 14일